

## 자타(自他)가 '삼동산림'을 계기로 성불(成佛)

- 2021년 삼동산림 회향 -



지난 1월 20일(음력 12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 설법전에서는 삼동산림 회향 법회가 여법하게 봉행되었다. 예년의 경우 삼동산림 회향 전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성도재일 철야정진 기도와 다음날 새벽 6시 삼동산림 회향 새벽법회가 거행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아쉽게도 거행하지 못하였다.

이날의 법회는 신년을 맞이하여 지난 한 해의 업식을 참회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한다는 의미로 더욱 뜻깊었으며, 천수, 법문, 불공, 전시식 순으로 봉원사 대중 스님들의 참여하에 여법하게 진행되었다. 법회는 코로나19 감염에 대비한 사전 방역작업과 마스크 착용, 손 소독,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감염이 발생치 않도록 만전을 기한 가운데 엄숙하게 봉행되었다.

삼동(三冬)의 추운 겨울, 절의 문밖을 나서지 않고 대중 스님들이 도업(道業)을 수행하는 것을 보통 다른 절에서는 '동안거'라 지칭하지만 봉원사 등 태고종 일부 사찰에서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자체적인 동안거 의식을 '삼동산림'이라고 한다. 스님들과 신도들이 매일 새벽 법회를 열고 하루를 시작하는 데서 다른 절의 의식과 차이를 보인다. 삼동산림의 기원은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수백 년 전부터 이어져 오고 있다고 알려진다.

지난 해 11월 24일(음력 10월 10일) 입재 이후 두 달 가까운 기간 동안 봉원사의 모든 대중 스님들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른 새벽에 예불을 모셨다. 매일 새벽 5시 도량석을 시작으로 쇠송, 타종(33추) 그리고 사부대중과 신도들이 참여한 가운데 설법전에서 새벽 예불과 기도, 공양을 두 시간 여 동안 봉행 후 새롭고 활기찬 아침을 시작했다.

신중단 기도에 앞서 봉원사 주지 원허 스님은 "새로 주지로 임명되어 3년 동안 봉원사를 이끌어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라고 하시며 "성도재일은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출가일(음력 2월 8일), 열반일(음력 2월 15일)과 더불어 불교 4대 명절 중 하나로, 부처님께서 6년 고행을 끝내고 중도의 길을 따라 용맹정진하여 마침내 성도(成道)를 이룬, 즉 우주를 아우르는 진리를 깨쳐 깨달음을 얻으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삼동산림 회향에 대해 "작년 음력 10월 10일에 시작된 삼동산림 기도를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들과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이 크게 남습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온 국가와 국민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회향날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봉원사를 사랑하고 아껴주시며 끝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라고 하시며 인사말을 맺었다.

의식의 마무리로 법사 만춘 스님의 법문이 있었다. "대부분의 중생은 그동안 자신이 들인 시간과 공이 가까워서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그냥 걸어갑니다.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면 반드시 궤도수정을 해야 합니다."라고 하시며, "부처님께서 6년 고행을 마치신 후 잘못된 방향을 바로 잡고자 고행이 아닌 수행으로 49일간 용맹정진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해를 보시고는 깨우치셨으니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라며 "자타(自他)가 삼동산림을 통해 성불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다.

회향 의식은 부처님의 생애를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일 것인가를 쉽게 설법해 주신 법사 만춘 스님의 법문을 끝으로 원만하게 마무리가 되었다.

### 신축(辛丑)년 입춘 불공 안내

귀의 삼보하옵고,

신도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시길 삼보전에 축원 드리오며 모든 일이 소원성취 하시길 바랍니다.

입춘은 1년 24절기 중 가장 처음 맞는 절기로서 새로 맞이하는 해의 재액을 소멸하고 만사여의 원만행통을 기원하는 날입니다.

금번 봉원사에서는 신축(辛丑)년 입춘을 맞이하여 다음과 같이 삼재소멸 신중불공을 봉행하오니, 신도님들께서는 두루 동참하시어 신중님의 가호력으로 삼재팔난의 재앙을 소멸하시기를 바랍니다.

- 입춘일시 : 2021년 2월 3일(음력 12월 22일) 수요일
- 입 춘 시 : 23시 59분
- 불공시간 : 오전 10시
- 삼 재 : 소(丑), 뱀(巳), 닭(酉)
- 문 의 : 종무소 (02-392-3007~8) 및 각 화주스님

한국불교 태고종 봉원사

# 불기 2565년 신축(辛丑)년 봉원사 시무식



하나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물론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소임 스님들과 직원 여러분 모두의 따뜻한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제껏 잘 해오셨듯이 각자의 임무에 최선을 다합시다. 맑은 세상 서로 도우며 사는 세상, 봉원사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도량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지난 경자년을 잘 보냈듯이 신축년 한 해도 여러분 건강을 기원드리며, 모든 가정에 행복이 있기를 부처님의 가피로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주지 스님은 특별히 봉원사 경내 경비를 책임지고 있는 직원들과 공양간 노보살님, 종무소 및 연지원 직원 등을 일일이 호명하며 그간의 노고에 대해 치하하시고 앞으로도 봉원사를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축년 소의 해를 맞아 새롭게 시작된 집행부와 모든 직원이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는 ‘파이팅’ 구호로 결의를 다졌습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아 봉원사 시무식이 지난 1월 4일(월요일) 오전 11시 설법전에서 열렸다. 이날 시무식에는 주지 원허 스님과 부주지 고담 스님을 비롯하여 총무 윤호 스님, 교무 정교 스님, 사회 처명 스님, 재무 연허 스님, 영산재보존회 사무국장 석천 스님, 옥천범음대 교학처장 경재 스님과 그 외 소임 스님들, 그리고 봉원사 직원들이 참석하였다. 새해에도 그 위세가 여전한 코로나19의 위중함으로 시무식은 인원 제한과 함께 손소독, 마스크 쓰기, 사회적 거리두기를 엄수하는 가운데 실시되었다.

이날 봉원사 제44대 주지로 부임하신 원허 스님은 인사말에서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해 봉원사 사부대중을 비롯해 직원 여러분과 함께 시무식을 하게 되어 기쁘기 한량없습니다. 지난해에 여러분들이 봉원사를 사랑하고 아껴 주셨던 것처럼 올해도 변함없이 봉원사를 위해 열심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며 “올해 저에게 봉원사의 앞날에 큰 도움을 주지 않을까 하는 사부대중의 기대 속에서 봉원사 주지라는 무거운 짐이 주어졌습니다. 꼬인 실타래와 같은 어려운 일들을 차근차근 풀어나감으로써 대중이 서로 편히 웃으면서 지낼 수 있는 도량을 만들겠습니다. 수많은 난관이 놓여 있지만 하나

## 시주 접수처 안내



봉원사 도량 내에 새로운 기와불사 및 시주 접수처가 마련 되었습니다. 시주(施主)란 글자 그대로 ‘보시하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신도님들은 새로운 시주 접수처에서 시주공덕을 쌓으시어 시련이 사라지고 더 많은 이익과 결실이 있으시길 축원 드립니다.

- 운영시간 : 오전 10시-12시, 오후 1시-3시
- 문 의 : 종무소(02-392-3007~8)
- ※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접수처 시간을 위와 같이 조정, 운영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봉원사

## 제24장 애욕품(愛欲品) 탐욕이 모든 것을 망친다.

### ▶ 도를 위하여 수행하는 사람은

爲道行者 不與欲會 先誅愛本 無所植根 勿如刈葦 令心復生  
위도행자 불여욕회 선주에본 무소식근 물여예위 영심부생

도를 위하여 수행하는 사람은  
언제나 애욕을 피하려 하니  
먼저 애욕의 뿌리를 끊고  
다시는 뿌리를 심는 일 없어  
마치 흔들리는 갈대를 베는 것처럼  
마음속에 애욕의 뿌리 자라지 않게 하라

### ▶ 나무 뿌리가 깊고 굳세면

如樹根深固 雖截猶復生 愛意不盡除 趣當還受苦  
여수근심고 수절유부생 애의불진제 취당환수고

나무뿌리가 깊고 굳세면  
비록 끊어 버려도 이내 자라듯  
애욕의 마음을 다 끊지 못하면  
이내 다시 괴로움을 받으리

### ▶ 원숭이가 숲을 벗어났다가

三十六使流 并及心意漏 數數有邪見 依於欲想結  
삼십육사류 병급심의루 수수유사견 의어욕상결

원숭이가 숲을 벗어났다가  
다시 숲으로 가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 그와 같아서  
감옥에서 벗어났다 다시 들어가네

봉원사 경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 해의 업식(業識)을 참회하고 위법망구(爲法忘軀)의 마음으로 출발”

- 신축(辛丑)년 관음예문 중산림 참회 법회 봉행 -



지난 1월 7일(음력 11월 24일) 목요일 새벽 5시와 오전 10시에 두 차례의 관음예문 중산림 법회가 여법하게 봉행되었다. 삼동산림 중 관음재일을 맞아 진행된 이날의 의식은 관음예문은 법주 경재 스님과 바라지 법길 스님, 전시식은 법주 도안 스님과 바라지 정교 스님의 집전으로 거행되었다.

이날의 법회는 지난 한 해의 업을 참회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한다는 의미로 더욱 뜻깊었으며 사부대중이 모두 한뜻이 되어 연비의식을 행하였다. 다만 코로나19의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실시로 인해 새벽 법회는 일반 신자들의 참여 없이 사부대중 스님들만으로 거행되었다. 오전 10시 법회는 코로나19와 갑자기 내린 눈으로 관음회 간부 신도님들 위주로 여법하게 봉행되었다. 물론 손소독,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법회는 원만히 봉행되었다.

‘관음예문’은 불보살님께 자신의 죄를 참회함으로써 공덕을 이루어, 자신과 남들이 다 함께 정토에 왕생하고자 하는 간절한 기원을 담은 의례문으로 부처님과 백의관음을 중심으로 한 여러 보살에게 귀의하고 찬탄한 후, 10악업(惡業)에 대하여 참회하고 무량수국에 왕생하기를 발원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참회란 기도, 참선, 정진을 말하는 것으로 내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깊게 반성하고, 다시는 똑같은 잘못됨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마음을 뜻한다. 참회에는 이참(理懺)과 사참(事懺)이 있는데 이참이란 마음을 깨닫지 못하여 어두워진 마음을 참회하는 것이고, 사참이란 몸으로 지은 업장을 참회하는 것이다.

법회 중에 행해지는 연비(燃臂)의식은 초의 심지에 불을 붙여 팔 일부의 살을 태움으로써 계를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살이 타는 동안

“참회진언[음 살바 못자모지 사다야]을 외우면서 자기 자신이 알게 모르게 그동안 지은 잘못된 행동의 결과(업)들을 뉘우치고 다시는 안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의식이다. 이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자신의 육신을 바칠 것을 맹세하는 의식이라고도 할 수 있다. 수도정진은 저절로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만큼 육身に 말도 못할 고통이 따르게 된다. 이러한 연비의식은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자신의 육신을 바칠 것을 맹세하는 불퇴전의 신심을 보이는 의식이다. 한마디로 위법망구(爲法忘軀 : 깨달음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음)의 지극한 신심을 고취하기 위한 상징적인 의식이 바로 연비의식이다.

이날의 새벽 예불은 코로나19로 인한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스님들의 발우공양 없이 마무리가 되었다.

주지 원허 스님은 법회 마무리 인사말을 통해 “예년과 달리 코로나19로 많은 신도분들을 모시지 못하여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어려운 발걸음 하셔서 끝까지 자리해 주신 관음회장, 부회장 및 관음회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라며 올 한 해도 봉원사를 위해 힘써 주기를 부탁하였다. 또한 법회 집전 스님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내년에도 올해처럼 정성들여 관음예문과 전시식을 해주길 바라며, 잘 다들어서 계승 발전시켜 주길 바란다.”고 말씀을 맺었다. 이어 영산재보유자 구해 스님은 “오늘 법회를 여법하게 잘 이끌어 주셔서 고맙고 매우 수고들 하셨습니다. 지난 업을 참회하고 새로운 기분으로 정진합시다.”라고 말씀하셨다.

봉원사에서는 삼동산림 중 관음재일을 택해 사부대중과 신도들이 모여 연비의식을 행함으로써, 한해의 업식을 참회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을 한다는 다짐과 불법(佛法)을 실천하겠다는 의지(意志)를 세우는 의식이 계승되고 있다.

## 종단의 위상과 안정화를 기원하며

- 신축년 신년하례 -

불기 2565년 신축년 새해를 맞아 한국불교 태고종 봉원사 주지 원허 스님과 소임 스님들은 1월 4일 총무원 방문을 시작으로 1월 5일은 백련사, 1월 15일은 선암사와 금둔사에 새해 인사와 종정예하 친견 및 선암사 참배를 다녀왔다.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은 총무원 문제를 조속히 매듭 짓고, 종단의 안정화 노력에 대해 협조를 요청을 하며, 더 나아가 한국불교 태고종 종단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큰 힘을 보태 달라고 당부했다.

백련사 주지 동허 스님은 태고종 총본산인 봉원사에 젊은 비구승들이 대거 상주하고 있음을 높게 평가하며 봉원사와 백련사 간의 상호 교류를 통한 부흥을 기원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신도 포교와 신행에 많은 어려움에 처한 현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과 뜻을 모아 당면한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선암사를 방문한 주지 원허 스님을 비롯, 부주지 고담 스님, 총무 윤호 스님, 교무 정교 스님, 재무 연허 스님, 사회 처명 스님은 지허 종정에게 신년하례를 올렸다. 이 자리에서 지허 큰 스님은 원허 스님의 봉원사 주지 당선을 축하하시고 봉원사 사부대중 스님들의 안부를 물으셨다. 또한 조계종과의 토지 분쟁에서 봉원사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하셨다.

이어 스님들은 선암사를 참배하고 주지 시각 스님을 예방하였다.



총무원장 호명 스님 친견



선암사 종정 지허 큰 스님 친견



선암사 주지 시각 스님 친견



선암사 참배

# 봉원사(奉元寺) 칠성각(七星閣)

— 서울특별시 문화재자료 지정 —



: 못의 머리를 감추기 위해 연꽃 봉오리처럼 만든 장식)과 봉두(鳳頭 : 전각의 기둥머리에 봉황의 머리 모양으로 새겨서 댄 장식)는 화려하게 조각된 조선후기 불전의 전형적인 의장 양식을 보여 주고 있다. 칠성각은 규모가 작은 건축물임에도 내부에는 2개의 평주가 설치되어 있어 어칸(御間 : 법당 한복판에 있는 칸) 영역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모습으로, 원당건축(願堂建築)에서 보이는 공간 구성의 특성이라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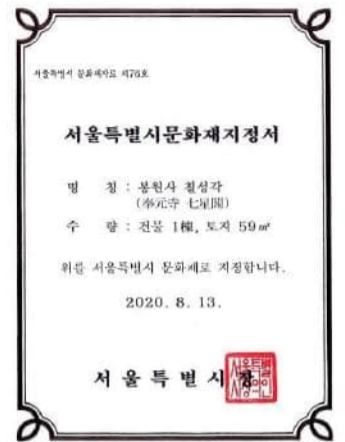
봉원사 칠성각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의소세손(懿昭世孫, 1750~52)의 제각(祭閣)으로 건립된 왕실의 원당건축이라는 점이다. 「영조실록」 31년 11월 20일 기축 1번째 기사에는 ‘... 지금 의소묘(懿昭墓)의 원당(願堂)인 봉원사(奉元寺)의

위전(位田 : 사찰 유지를 위해 설정된 토지)을 본 고을에 망정(望定)하였다 합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 봉원사가 의소세손의 원당임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칠성각 관련 기록물에 중창 이전에 ‘신당(神堂)’이라 불렀다는 점과 불단 내부에서 ‘의소제각(懿昭祭閣)’ 편액이 발견된 상황을 보았을 때 현재의 칠성각 건물은 영조 때 요절한 의소세손의 원당건축물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봉원사 칠성각은 조선시대에 건립된 원당건축이 남아 있는 보기 드문 사례이며, 특히 서울 지역에서 원당을 목적으로 건축되었다는 내력과 관련 유물(의소제각 편액)이 남아 있는 유일한 사례이다.

현재의 봉원사 칠성각은 비록 중수 시기가 19세기로, 비교적 늦은 시기의 건축물이고, 소규모 부속전각으로 주목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추후 조선시대 왕실원당건축 연구에 있어서는 원당 형식 분석의 기준 역할을 할 귀중한 사료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원당(願堂) : 예전에, 죽은 사람의 화상이나 위패를 모셔 놓고 명복을 비는 법당. 유의어 원찰(願刹)

\*\*오량가(五樑家) : 다섯 개의 도리로 짠 지붕틀로 지은 집.



칠성각 문화재자료지정서

봉원사에서 문화재 지정 신청한 문화재가 서울시의 사전 조사와 서울시 문화재위원 등 전문가의 조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의 1차 심의를 통과, 2020년 8월 13일 서울시보(제3600호)에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 공고되었다. 이번 호에서는 서울특별시 문화재자료 제76호로 지정된 봉원사의 칠성각(七星閣)을 소개하고자 한다.

서울 서대문구 봉원동 소재 봉원사는 조선국사의 창건 설화가 전하지만, 현재의 자리는 영조 24년(1748), 딸인 화평옹주(1727~1748)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영조 대왕이 친히 땅과 편액을 하사하는 등 왕실의 지원으로 중창하면서 자리 잡은 것이다.

또한 정조의 동복형인 의소세자(1750~1752)의 원당(願堂)\*으로 지정하여 명실공히 왕실사찰로서 도량의 위상을 갖추었다.

봉원사 칠성각은 주불전인 대웅전의 북서쪽, 경사가 가파른 둔덕에 있다. 전면 3칸 5량가(五樑家)\*\* 맞배지붕의 전각으로 건물의 측면과 후면에는 건물 안에 불이 났을 때 그 불길이 다른 곳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불에 잘 견디는 재료로 만든 화방벽(火防壁)이 설치되어 있다. 지붕을 받치고 있는 공포(拱包 : 처마 끝의 무게를 떠받치기 위해 기둥머리에 짜 맞추어 댄 나무쪽)는 2출목(二出目)의 다포이며, 연봉(蓮-

**이달의 시**

## 노숙자

전지암 스님

어릴적 놀랐던 거지의 행색  
누군가의 아버지는  
스스럼 없이 땅위를 뒹군다

한때는  
넥타이를 매었던 화이트칼라  
누가 이 세월을 만들었을까

행복했던 가족들 웃음  
소라 껍질 파도소리는  
길바닥 소주병 한으로 남아..

서울역  
박스이불 지하도에서  
링거를 뽑고 이젠 퇴원해야 하련만

세월은 언제쯤 깨어 내려는가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관한 건**

봉원사는 순수 기부금에 한해서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사보 후원금**

이 승 환 1만 원(인공 스님)  
김 종 원 5만 원(선각 스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병관리청

## 손바닥, 손가락 사이, 손톱 밑 등 구석구석 깨끗한 손씻기를 실천해요!

올바른 손씻기 6단계

- 1 손바닥**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주세요
- 2 손등**  
손등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주세요
- 3 손가락 사이**  
손바닥을 마주대고 손가락을 끼고 문질러 주세요
- 4 두 손 모아**  
손가락을 마주잡고 문질러 주세요
- 5 엄지 손가락**  
엄지손가락을 다른 편 손바닥으로 돌려주면서 문질러 주세요
- 6 손톱 밑**  
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에 놓고 문질러 손톱 밑을 깨끗하게 하세요

# 새로운 한 해의 시작과 희망찬 새해를 위한 간절한 기도

- 봉원사 2021년 입춘불공 봉행 예정 -



기원한다.'는 의미이고, '소지황금출(掃地黃金出), 개문만복래(開門萬福來)'는 '땅을 쓸면 황금이 생기고, 문을 열면 만복이 온다.'는 의미로 많이 사용된 입춘첩이다. 그 외에 '국태민안(國泰民安), 가급인족(家給人足)' 등도 많이 써 붙이는데, 이 모두 따뜻한 봄이 오기를 희망하고 한 해 동안 길한 운과 경사스러움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

불교에서도 민간의 입춘첩처럼 '다라니(眞言)'를 적어서 문이나 기둥에 붙였다. 조선시대 정조 임금의 '부모은중경(父母恩重經)'에 나오는 진언을 인쇄해 나누어 주고 대문 등에 붙여 재앙을 물리치게 했다는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다라니를 민간에서는 부적처럼 신성시 여겼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적선공덕행(積善功德行)'이라 하여 입춘날이나 대보름날 전야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착한 일을 꼭 해야 연중 액(厄)을 면한다고 여겼다. 이에 따라 밤중에 몰래 냇물을 건너 다닐 징검다리를 놓는다는지, 거지나 가난한 이들에게 몰래 선행을 베푸는 일 등을 행했다고 전해진다

불기 2565년 2월 3일(음력 12월 22일) 수요일 봉원사에서는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立春) 불공이 봉행될 예정이다.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인 입춘은 새해를 상징하는 절기로서 24절기 중 첫 번째 절기이다. 입춘은 말 그대로 봄에 들어가는 절기이니 달력상으로는 24절기 중 소한, 대한 다음에 오는 3번째 절기이지만 계절의 시작인 봄을 알리는 절기여서 24절기의 처음으로 여겨지고 있다.

우리 선조들은 음력 설날을 기점으로 한 해가 시작된다고 해서 이날 떡국을 먹으며 나이에 한 살을 더했다. 그러나 절기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겨울이 가고 봄이 시작되는 입춘이야말로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다. 생명이 움터 나오는 때를 한 해의 시작이라 말할은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입춘에는 여러 가지 민속행사가 행해진다. 그 중 하나가 입춘첩(立春帖)을 써 붙이는 일이다. 이것을 춘축(春祝) 또는 입춘축(立春祝)이라고도 하며, 각 가정에서는 대문기둥이나 대들보, 천장 등에 좋은 뜻의 글귀를 써서 붙인다. '입춘대길(立春大吉), 건양다경(建陽多慶)'은 '봄이 시작되니 크게 길하고, 경사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길

민속전통과 함께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가피(加被) 속에서 새로 맞이하는 해의 재액을 소멸하고 만사형통을 발원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입춘기도를 봉행하고 있다. 특히 삼재(三災)가 모든 일에 장애를 일으킨다하여 이를 막기 위해 삼재불공을 올린다. 올해의 삼재는 낄삼재로 소(丑), 뱀(巳), 닭(酉)띠가 이에 해당된다.

불교와 함께 우리 풍습에 맞게 발전되어 온 전통적인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고 희망차게 만들어 준다. 입춘은 새로운 봄을 준비하며 한 해를 맞이하는 민족의 간절한 마음을 담은 의미있는 명절인 만큼, 삼재를 소멸하고 화를 복으로서 다스리고 만사형통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는 삼재소멸 신중불공을 봉원사에서 드려 봄은 어떨까.

## 관음법회 및 초하루법회 안내

관음법회(음력 24일)와 초하루법회(음력 1일)는 정기적으로 열리는 봉원사 법회입니다. 관음회는 봉원사 제1의 신행단체로서 두 법회의 원활한 진행과 신도님들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음도량인 봉원사의 관음법회와 초하루법회에 동참하시어 관세음보살님의 가피 속에 가정의 행복과 건강을 이루시고 모든 소원을 성취하시길 삼보전에 기원합니다.

### 안 내

- 동 참 금 : 관음법회 및 초하루법회 각각 매월 1만 원 (1년분 선납시 10만 원)

봉원사 관음회 회장 송성심월

## 인등기도입재 안내

귀의 삼보하옵고, 신축(辛丑)년 새해를 맞이하여 불자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옵기를 삼보전에 기원드립니다. 봉원사에서는 매년, 한 해 동안 어둠과 무명을 몰아내고 지혜를 얻기 위한 인등기도 입재를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신도님께서도 무무 동참하시어 부처님과의 선근인연으로 지혜를 얻고 자손창성과 모든 소원을 성취하길 기원합니다.

### 아 래

- 입재일 : 2021년 3월 7일(음력 1월 24일) 일요일
  - 시 간 : 오전 10시
  - 장 소 : 미륵전
  - 인등비 1인 1등 1개월 6,000원 / 1년 72,000원
- ※ 전년도 인등기도 동참금 중 미납된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일엔 혼잡하므로 미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봉 원 사

부처/님/전/생/이/야/기

# 본생경(자타카) 70

자타카(Jataka)는 부처님 전생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을 통해 알려졌고, 그 후 구전되다가 문자로 기록되었으며 동서양으로 이어져 「이솝우화」와 「아라비안나이트」, 그리고 우리나라 「삼국사기」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알려져 있다. 판소리 「별주부전」으로 발전한 「토끼와 거북」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다. 이 설화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인도를 비롯한 중국 등 동아시아에 전파된 것은 1세기부터 6세기로 보고 있다. 중국은 67년 축법란이란 분에서부터 285년 축법호라는 분의 생경(生經) 번역까지 5차례에 걸쳐 700여 편의 본생 설화가 한역되었으며, 한국에서는 본생경(本生經), 일본에서는 본생담(本生譚), 중국에서는 본생주(本生注) 등으로 소개되고 있다.

## 악한 왕의 전생 이야기

옛날 범여왕이 바라나시에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보살은 양가(良家)에서 태어났다. 그는 성장하여 바라나시의 어느 양가 여자와 결혼했다. 그 여자는 춤추는 선녀처럼 아름답고 사랑스러웠다. 이름은 수자타(Sujata, 善生) : 부처님이 6년 고행으로 지친 몸을 수자타의 우유죽 공양으로 기력을 회복했다.)로 무척 유순하고 예의가 바랐다. 남편이나 시부모에 대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인 보살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사람들은 이 부부의 금슬이 무척 좋다면서 부러워했다.

어느 날 그녀는 친정 부모가 보고 싶다고 보살에게 말했다. “그렇다면 부모님을 뵈러 가야지. 나와 함께 가도록 합시다.” 보살은 곧 길 떠날 채비를 했다. 가는 동안 먹을 음식을 충분히 준비하여 마차에 싣고 바라나시를 향해 길을 떠났다. 보살은 마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 강가에서 목욕도 하고 수자타와 맛있는 식사를 하면서 즐거운 나날을 보냈다.

길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마차는 바라나시 성 가까이에 도착했다. 수자타는 부모님께 단정하게 보일 생각으로 옷을 갈아입고 화장한 뒤에 마차의 뒷자리에 앉아 있었다. 마침 마차가 성 안으로 들어갔을 때 바라나시 왕이 코끼리를 타고 다가왔다. 수자타는 마차에서 내려 천천히 뒤를 따라 걷고 있었다. 왕은 그녀를 보자마자 그만 눈도 마음도 모두 빼앗기고 말았다.

왕은 급히 대신 한 사람에게 그녀에게 남편이 있는지 알아 오라고 지시했다. 대신은 급히 마차를 향해 달려갔다 와서 왕에게 보고했다. “대왕님, 남편이 있습니다. 저 마차에 앉아 있는 사내가 남편입니다.”

왕은 괴로웠다. 불같이 타오르는 욕정을 억제할 수가 없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사내를 죽이는 일이 있더라도 저 여자를 차지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왕은 급히 한 가지 간계를 꾸며 냈다. 신하 한 명을 불러 보석을 주면서 지시했다. “너는 길거리를 걸어가는 척하고 있다가 이 보석을 저 사내의 마차 안에 던져 넣어라.”

신하는 왕의 분부대로 그 보석을 보살의 마차에 던져 넣었다. 그리고 틀림없이 보석을 사내의 마차 안에 던져 넣었다고 왕에게 보고했다. 그러자 왕은 “보석을 잃어버렸다!”라고 소리치면서 큰 소동을 일으켰다. 왕은 성문을 닫고 교통을 차단한 뒤 그 도적을 잡으라고 명령했다. 갑자기 성 안은 큰 혼란에 빠졌다. “마차를 멈추어라. 대왕님의 보석이 없어졌다. 우리가 그 마차를 조사해 보겠다.”

보살의 마차에 보석을 던져 넣은 신하가 여러 사람들을 이끌고 보살의 마차 가까이로 다가가서 소리쳤다. 신하는 마차 안을 조사하다가 자기가 던져 넣은 보석을 집어 들고 소리쳤다. “보석이 여기 있다! 이 사내가 보석 도둑이다!” 신하는 보살을 발로 때리고 차고 손을 뒤로 묶은 뒤 왕 앞으로 끌고 갔다. “이놈이 보석 도둑입니다.” 신하는 왕 앞에 보살을 엎드리게 했다. “이놈의 목을 베어라.” 왕은 일언지하에 보살의 목을 베라고 명령했다.

왕의 명령을 받은 신하들은 보살을 채찍질 하면서 성의 남문 쪽으로 질질 끌고 갔다. “여보, 당신은 나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으십니다.” 수자타는 마차를 버려두고 통곡하고 소리치면서 계속 보살의 뒤를 따라갔다. 보살이 남문에 이르자 신하들이

보살의 목을 베려고 보살을 반듯이 눕혔다. “이 세상에 덕 있는 사람을 괴롭히는 포악한 자를 제지시킬 수 있는 신은 없는가?” 보살은 사형장에 누워 통곡하면서 다음 계송을 읊었다.

이 세상에는 신도 없구나  
어떤 외국으로 달아났는가.  
참으로 이 세상에는  
수호해 줄 사람 없는가.  
거칠게 행동하는 악덕한 이를  
제지시킬 사람이 참말 없는가.

보살이 통곡을 하자 천상에 있던 제석천\*의 자리가 뜨거워졌다. “저 바라나시 왕이, 저 도둑이 견고한 여자를 괴롭히고 있구나. 그래서 내 자리가 뜨거워졌구나. 나는 지금 저 여자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석천은 곧 천상에서 내려와 코끼리를 타고 가는 왕을 끌어내려 사형장에 반듯이 눕혔다. 그리고는 그 옆에 누워 있던 보살을 일으켜 그 몸을 훌륭하게 장식하고 왕의 옷을 입힌 후에 코끼리 등에 앉혔다. 사람들이 도끼를 들어 목을 베자 그것은 바로 왕의 머리였다. 그때서야 제석천은 여러 사람들 앞에 그 모습을 나타내어, 보살을 왕위에 나아가게 하고 수자타는 그 제일 왕비의 지위에 있게 했다. 여러 대신들과 바라문과 도사들은 제석천을 보고 ‘불의 왕은 죽었다. 이제 우리는 제석천이 내려준 왕을 모시게 되었다.’ 고 다들 기뻐했다.

“이 제석천이 너희들에게 내려준 이 왕은 지금부터 정의로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만일 왕으로서 부정하면 때 아닌 때 비가 오고, 비가 내려야 할 때 내리지 않으며, 주립의 두려움, 병의 두려움, 전쟁의 두려움 등 세 가지 두려움이 일어날 것이다.”

제석천은 사람들을 훈계하고 나서 다음과 같은 계송을 읊었다.

왕이 악하면 때 아닌 때 비 내리고  
내릴 때에는 내리지 않네.  
저 나쁜 왕도 하늘에서 내려와  
그 악행 때문에 죽지 않았는가.

\*제석천(帝釋天) : 불교의 수호신으로 수미산 정상에 있는 하늘인 도리천의 주인이다. 강력한 신들의 우두머리라는 뜻으로 수미산 중턱의 사천왕을 거느리고 불법과 불제자를 보호한다.

**숲속 한방랜드 24시 숲가마 사우나**

도심에서 즐기는 숲가마 찜질 여행  
당신의 생활 속 편안한 휴식을 드립니다.



서대문구 봉원동 51  
(시내버스 7024번 종점)  
전화 : 02)365-2700~1

“음식물 쓰레기 걱정 짝~”

### 음식물 바이오 소멸기 및 살균수 생성기



업소용 음식물소멸기    가정용 음식물소멸기    살균수 생성기 짝수

- 캐나다 밴쿠버 세계박람회 최우수 상품 선정
- 미래창조과학부 “녹색기술 인증기업” 선정
- 이노비즈 기업 선정, 정부 광고지원 대상 업체 선정

(주) 조은생활    문의 : 김순복(010-3182-3445)

조상의 풍류와 낭만을 따라서... 정자(亭子) 기행 70



해운정(海雲亭) 강원도 보물 제183호 / 강원도 강릉시

## 강릉 해운정(海雲亭) 겉은 소박하고 안은 세련된 별당

해운정은 경포호 서쪽에 있는 조선 상류 주택의 별당 건물로, 1530년(중종 25) 어촌 심언광(沈彦光)이 강원도 관찰사로 있을 때 지은 것으로 전한다. 위치는 강원도 강릉시 운정동의 경포호가 바다로 보이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185호로 지정된 이 건물은 강릉에서 오죽헌 다음으로 오래 되었으며 심씨종중에서 관리해 오고 있다.

이 건물은 남향으로 터를 잡고 3단으로 쌓은 돌축대 위에 지었다. 정면 3칸, 측면 2칸의 익공양식을 하고 있는 홑처마의 팔작집으로 오른쪽 2칸은 대청마루로, 왼쪽 1칸은 온돌방으로 꾸몄다.

건물 정면에는 우리가 한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띠살문(세살문)을 달았다. 이 띠살문은 돌씩 접고 들어 올릴 수 있는 분합문의 형태로 문 끝에 달린 들쇠에 매달아 기둥만 남기고 탁 트인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여름철에는 전면이 개방된 실내에서 경포호수를 바라보며 시원한 별당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건물 주위로는 뒷마루를 설치하여 이동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해운정은 마당보다 높게 석축을 쌓아 건물을 짓고 처마를 높인 탓에 건물 외적으로 매우 아름다운 형태를 띠고 있다. 또한 실내 기둥에는 세련된 조각 장식을 하였으며, 대청마루와 방 사이의 창호는 비례가 알맞아 미적으로 매우 훌륭하다.

건물 전면의 '해운정'이란 편액은 우암(尤菴) 송시열(宋時烈)의 글씨이며, 내부에는 권진응의 기문(記文)을 비롯하여 율곡 이이 등 유명한 사람들의 시문과 기록들이 보존되어 있다. 또한 1537년(중종 32) 명나라 사신 정사 공용경이 쓴 '경호어촌(鏡湖漁村)'과 오희맹이 쓴 '해운소정(海雲小亭)'이란 친필 현판은 조선의 문장가에 대한 경탄과 우정의 증거로서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글/사진 선암 석인철  
(한국사진작가협회 자문위원)



### ☺ 봉원사 주차장 이용안내 ☺

봉원사를 찾아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봉원사를 방문하시는 신도분들께서는 종무소나 각 화주 스님께 문의하시어 주차증을 발급받으신 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증이 없는 경우에는 요금(30분 무료, 이후 10분당 500원)이 발생합니다. 주차장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일반요금 : 기본 30분 무료, 이후 10분당 500원
- 무료주차 : 주차증 제시
- 문의 : 종무소(02-392-3007~8)

한국불교 태고종 봉원사

# 삼천불전 보수·정비 불사 계획도



### ◆ 모연부재목(시주내용) ◆

단위:만원

부재명	모연금	부재명	모연금
추녀	500	서까래	20
사래	200	개판	20
도리	100	부연	10
장여	50	기와(대와)	2



### ◆ 시주문의 ◆

종무소 : 02-392-3007~3008

# 삼천불전(三千佛殿) 보수·정비 불사

부처님 말씀에 ‘불사(佛事)는 복전(福田)이라’, 모든 중생에게 복에 종자를 심는 큰 터전이라 하셨습니다. 천년고찰 봉원사에서는 삼천불전의 보수 및 정비를 위한 불사에 온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크고 작은 많은 장애를 모두 극복하여 보수·정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불교 전통문화 보전과 수행환경 개선을 위한 불사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큰 공덕을 짓는 의미있는 불사에 많은 신도님들 동참하시어 소중한 인연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종무소(02-392-3007~8) 및 각 화주 스님

## 한국불교 태고종 봉원사



## ☘ 자원봉사단 단원모집 안내 ☘

귀의 삼보하옵고,

봉원사 도량내 기와불사와 시주접수처 업무 및 관리를 위한 자원봉사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아울러 봉원사에서는 정기적으로 군부대, 소년원 등 사회 각지에 부처님의 자비가 내려질 수 있도록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종교를 초월하여 손길이 필요한 곳에 희망을 전파하는 활동에 함께 참여하거나 도움을 주실 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문의 : 종무소(02-392-3007~8)

## 한국불교 태고종 봉원사

## 삼천불전 보수불사 시주자 명단(무순)

김현아 조원경 황익청

시주해 주신 신도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